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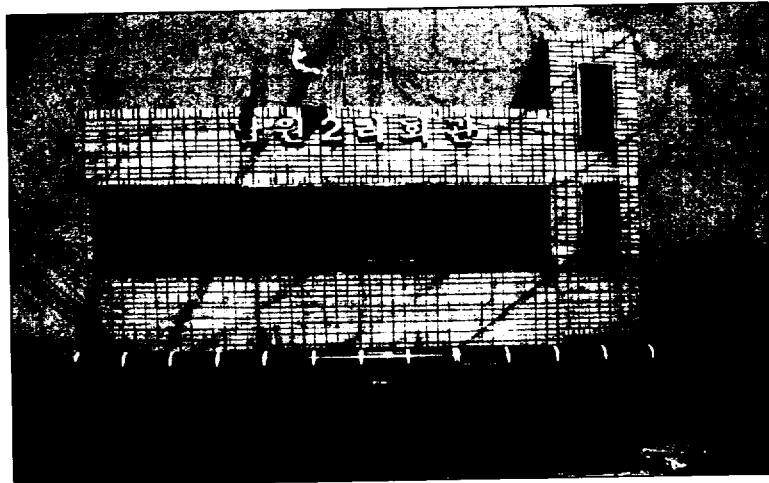
■ 현지학술조사보고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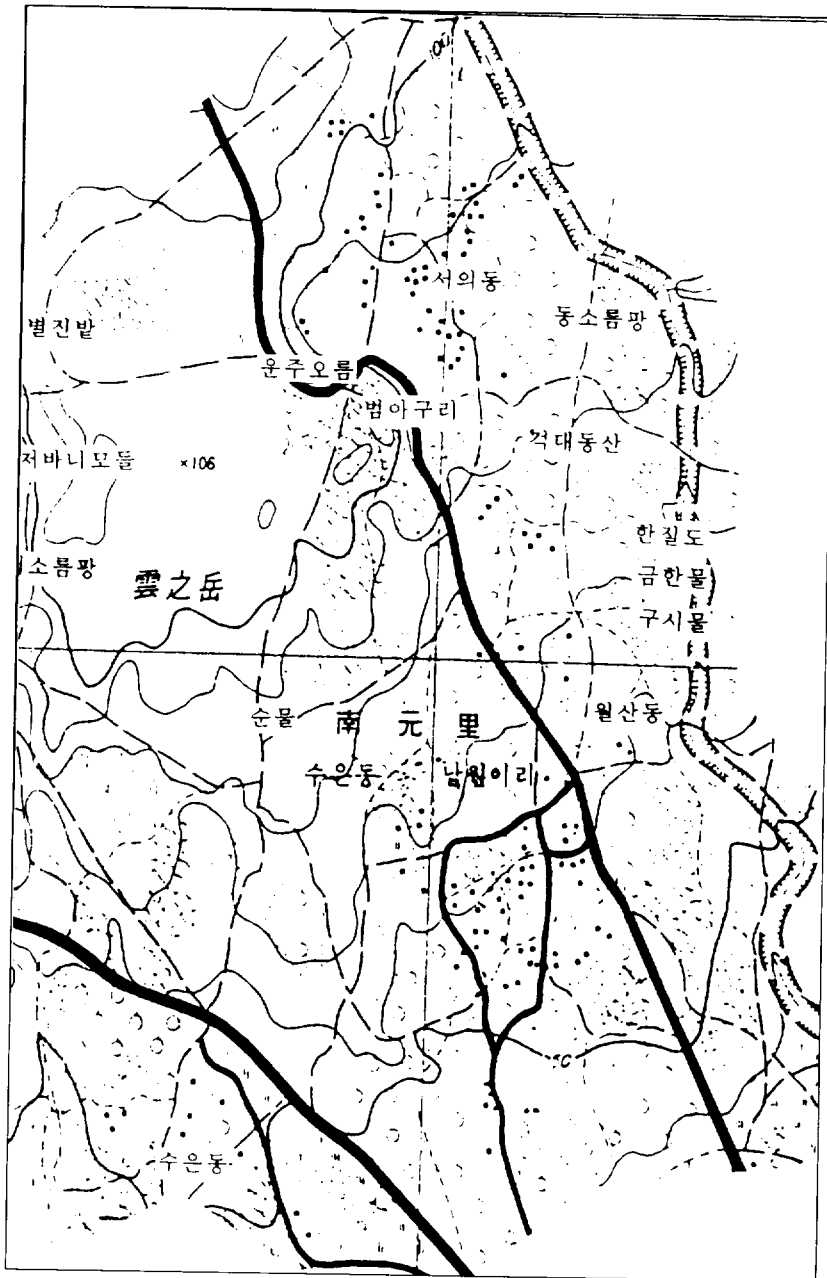
(西歸浦市 南元邑 南元二里)

2009년 6월 22일 ~ 6월 24일 조사

▣ 사회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신앙 ▣



남원2리 지도



사회배경

차 례

1. 지리적 환경
2. 설촌 유래와 변천
3. 인구 및 일반현황
4. 산업 구조
5. 잃어버린 마을 '버너리굴' 표석

1. 지리적 환경

남원2리는 서귀포시 동지역의 중심부로부터 동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중산간 마을이다. 남원1리와는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승용차로는 3~4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남원2리는 월산동, 수은동 및 서의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의 중심은 리사무소와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체육시설인 운동장, 새마을금고(남원 제2분소) 등이 있는 월산동이다. 서의동과 수은동은 각각 월산동에서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연결된다. 이들 자연마을의 표고는 50~70m, 또는 80~100m에 이르는데, 상대적으로 북쪽에 자리잡은 서의동이 높고 수은동이 낮게 나타난다. 바다의 경우, 남원2리는 본래 중산간 지역이기에 소유하고 있는 바다가 없으나 남원1리와 함께 그 소유를 같이한다.

2. 설촌 유래와 변천

남원2리 동쪽은 의귀리, 서쪽은 위미3리, 남쪽은 남원1리이며, 북쪽은 한남리에 이른다. 충렬왕 16년, 1290년 본 마을의 근변에 정씨 열녀문이 있었고 마을의 풍수를 막기 위하여 팽나무를 심어 마을을 수호한 고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마을의 설촌연도를 1290년으로 본다. 남원 2리 노인회장 현달호 씨에 의하면 이 정씨 열녀문은 훼손되어 사라졌다가 1374년(공민왕 23) 때 개비되었다고 한다. 그 후 정씨, 현씨, 오씨가 들어왔으며 마을외곽에 산재한 선묘의 연대를 미루어 500여 년 이전에 이 곳에 정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김씨, 고씨, 송씨가 정착하여 마을이 확산되어 갔다.

1416년(태종 16)에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정의현 관할이었고, 그 후 중면에 속하였다. 이 마을은 '웃귀(의귀)'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서웃귀'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표기해서 '서의귀리(西衣貴里)'라고 하였으나, '귀'자를 생략하여 '서의리(西衣里)'라고도 하였다. 19세기 중후분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 서는 서중면으로 분리함에 따라 이 마을은 서중면 서의리가 되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으며 이때 행정구역폐합으로 남원리와 서의리를 통합하여 남원리라 하였다. 1915년에 전라남도 제주도 서중면 남원리가 되었다.

1925년 4월 5일에는 경찰주재소를, 1926년 3월 20일에는 서중면사무소를 각각 의귀리에서 남원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을 남원면으로 개칭하였고, 현재의 남원2리는 남원1구로, 남원1리는 남원2구로 나누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남제주군 남원면 남원1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으로 마을은 남원1리로 소개하여 한동안 폐허가 되었다가 1950년 월산동에 성을 쌓아 재건하였다. 이때 남원1구와 2구가 남원리로 통합되었다가 1953년에 현재의 남원1리, 남원2리로 분리되었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남원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가 되었다.

1) 지명 유래

① 돌동산동네·월산동(月山洞)

‘운조름·운주름’ 아래쪽에 있는 동네로, 예로부터 ‘돌동산[돌똥산]’이라 불렀는데, 이를 ‘돌동산’으로 인식하여 월산동(月山洞)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② 서옷귀동네·서의동(西衣洞)

‘운조름·운주름’ 바로 동북쪽에 형성되어 있는 동네로, 예전에는 ‘서옷귀동네’라 하였는데, 이것을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 서의동(西衣洞)이다.

③ 수은물동네·순물동네·수은동(水隱洞)·수월동(水月洞)

월산동(月山洞) 서남쪽, 광지동 서북쪽에 있는 동네로, ‘수은물·순물’이 있는 동네라는 데서 한자차용표기로 수은동(水隱洞)이라 하였다. 그러나 『조선지리지자료』(1910년경)에 ‘西衣里 水温池·물다순못’이라 한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물닷은못(물다순못)’이라 부르다가 한자차용표기로 수은지(水温池)로 표기하고, 나중에는 ‘수은물·순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는 달이 물에서 뜬다는 데서 수월동(水月洞)으로 쓰는 사람도 있으나, 원래 이름과 다른 것이다.(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참조)

3. 인구 및 일반현황

1) 세대 및 인구

(2008. 7. 31. 현재)

구분	합계				한국인				외국인		
	세대	계	남	여	세대	계	남	여	계	남	여
남원2리	211	573	274	299	211	572	273	299	1	1	.

2) 리별 면적 및 자연마을 수

(2008. 7. 31. 현재 / 단위: 천 m²)

행정구역		면적	자연마을수	반수	비고
법정리	행정리				
남원리	남원1리	8,348	4	28	
	남원2리		3	7	

4. 산업 구조

남원2리의 산업 구조는 본래 여름에는 조, 고구마 등 오곡을 밭에서 생산하였으며 겨울에는 보리를 생산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과수원 붐이 불면서 대개의 농가가 감귤 농업(하우스 감귤, 노지 감귤 등)으로 전향하였다. 남원2리의 전체 면적은 522ha로서 남원을 총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기후가 온화하여 감귤 경작지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과수원이 전체면적의 71%인 372ha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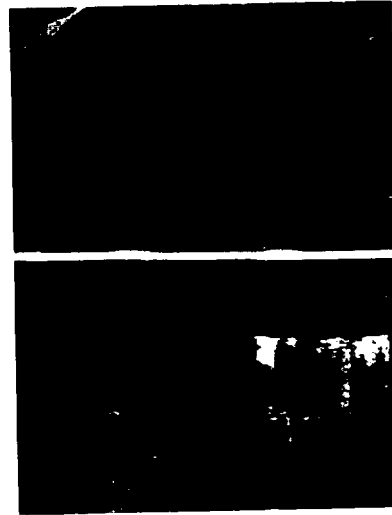
이전에는 닭과 돼지도 길렀는데 닭은 방목해서 기르고 돼지는 집마다한 마리씩 길렀다. 소는 여유가 있는 집에서 길렀고, 5월에는 방목하고 겨

올에는 풀을 먹여 길렀다. 축산과 관련하여 한남리, 남원 1리, 남원 2리의 공동 목장이 있었고, 이 목장의 소유는 화재로 인한 문서 소각으로 군과 시로 넘어가게 되었다.

5. 잃어버린 마을 '버너리굴' 표석

- 위치: 남원2리 1691 일대
- 연대: 2003년 4월 3일
- 규모: 비고 92.8, 폭 169.0, 두께 21.0cm, 와비
- 내용: 1948년 11월 28일 4·3여파로 무장에 의해 불태워져 표석 세움.

남원2리 노인회장 현달호 씨에 의하면 남원2리는 원래 서의동, 월산동, 수은동, 버너리굴 네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4·3때 버너리굴이라는 마을이 전소되어 그 자리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2004년 4월 3일, 제주도지사가 마을의 터를 남기는 '잃어버린 마을'비를 세웠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는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2리 '버너리 굴' 마을터이다.

마을에 지세가 반달모양 같다고 해서 반월동으로도 불렸다. 1백여 년 전, 설촌된 이후, 현 씨, 고 씨, 김 씨, 전 씨 등 23호의 1백여 명의 주민들이 밭농사를 짓고 우마를 기르며 살던 비교적 부유한 중산간 마을이었다.

그러나 4·3사건의 회오리 바람은 이 마을이라고 빗겨가지 않았으니 주민들을 1948년 11월경 남원1리로 스스로 소개하여 왔으나 텅 빈 마을은 그달 28일 무장대에 의해 전소되었고 이 와중에 소개된 마을에서 주민 4명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소개지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재건명령에 따라 현재의 리사무소 근처에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한 이후, 이 곳으로는 돌아오지 않아 지금은 감귤 농장으로 변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올래와 대문의 흔적, 그리고 술쩍 자란 소나무와 동백나무들이 여기에도 사람들이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영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2004. 4. 3.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 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지사

■ 조사자 : 고재원(06), 엄준역(06), 김경미(08), 김다혜(09), 김동유(09), 김완식(09), 박향아(09), 장소영(09)